

박수천(동아대)

1. 緒言
2. 주체인식의 문학론
3. 주체욕망의 시문학
4. 타자갈등의 시문학
5. 結言

### 1. 緒言

주체와 타자에 대한 담론은 데카르트 이후 근대철학에서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다각적인 해석이 시도되어 왔다. 포스트모더니즘론의 활성화와 함께 이론가들은 주체논의를 다양화하여 셸링, 키에르케고르, 니체, 레비나스, 하이데거 등의 철학에서 그들이 표명한 주체에 대한 관념과 의미를 분석해 냈다.<sup>2)</sup> 특히 근래의 최고 지성으로 꼽히는 데리다, 라깡, 알튀세, 푸코 등은 심도 있는 주체인식론을 펼치면서 주체의 타자화와 타자의 주체화를 논의하면서 주체의 해체를 통한 주체의 부정으로까지 논의를 확대시켰다.<sup>3)</sup>

이들 철학자들이 논의한 주체담론은 사유와 인식의 주체로서 인간이 지니는 욕망과 갈등의 측면을 세밀하게 천착한 이론들이다. 문학에서 주체와

1)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강영안은 그의 저서(주체는 죽었는가, 문예출판사, 1996)에서 현대철학의 포스트모던적 성격을 논의하며 주체에 대한 인식과 담론을 데카르트로부터 올려 잡아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철학자들의 저작에서 주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정리해 두었다.  
3) 윤효녕 등은 데리다, 라깡, 알튀세, 푸코 등의 논의한 주체 개념을 인식의 발전과 차이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담론을 분석해 정리하였다.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출판부, 1999)

타자의 담론을 기반으로 작가와 작품을 분석한 논의도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고전문학의 경우에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비평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평가를 시도해, 궁극적으로 문학사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의 접근이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 문학사에서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문학사 기술의 중요한 관건일 수밖에 없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학의 전개에서 선택과 배제가 필연적인데 여기서 무엇을 주체로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주체인식의 권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자로 지목되어 배제된 문학현상이 그야말로 거론의 가치 없는 타자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이들이 타자성을 탈피해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을 했는지는 심각한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 하겠다.

한국 한문학에서 주체와 타자의 담론을 적용하면 그 담담층에서 주체와 타자의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한문학은 그 장르 자체가 근대 이전의 주체적 문학이었지만 실제 작품을 향유한 계층은 역사적 사회적 주체만이 아닌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한문학 담담층의 주체라 한다면 당연히 양반 사대부 계층이라 하겠고 그들에 의해 타자로 배제된 계층은 중인층, 평민층, 여성문인, 승려들, 천인층 등 사대부외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양반 사대부들 내에서도 권력을 지닌 집단과 권력에서 소외된 집단이 존재했고 이들 사이에도 주체와 타자의 인식과 갈등이 존재했었다. 그런데 주체에 의해 타자로 배제된 집단이 스스로를 타자의 범주에 두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주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한문학의 경우에도 주체인식의 문제는 담담층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작가 개인의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문학에서 주체와 타자의 문제와 갈등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담담층은 이른바 위항인, 여항인, 중인 등의 용어로 불리는 계층이라 하겠다. 이들 용어가 함유하고 있는 대상 인물들의 폭이 상당히 넓으나 대체로 사대부 계층과 동등한 학문과 지식을 갖추었지만 권력에서 배제된 京衙前과 雜科 출신의 중인들이 대표적이다.<sup>4)</sup> 이들은 자신들이 지닌 타자로서의 신분 갈등을 문학작품으로 드러내어 자신을 표현함과 동시에 문학을 통해 주체

4)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로서의 욕망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이런 점은 위항인의 문학이 문학사의 타자에 그치지 않고 타자의 주체화를 이루고 있어 새로운 주체로서의 시각과 평가를 요구한다.

이에 본고는 조선조 위항문학의 실체를 선명히 드러낸 柳下 洪世泰(1653, 효종4~1725, 영조1)의 경우를 들어 그의 시문학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의 인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는 조선조 사회의 명확한 신분적 타자였지만 스스로 타자를 벗어나 주체로서의 문학을 욕망하였다. 홍세태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위항문학의 논의와 함께 여러 편이 보고되었는데,<sup>5)</sup> 이들 성과를 수용하면서 주체와 타자의 시각으로 그의 시문학을 다시 한 번 조명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 2. 주체인식의 문학론

홍세태는 부친 翊夏와 모친 강릉 劉氏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중인층 중에서도 한미한 편이었고 그의 조부와 부친은 무관직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태생 자체가 조선조 사회의 권력 주체인 사대부 계층과 확연히 구분된 타자라 하겠다. 한 野史에는 그가 私奴였다는 기록이<sup>6)</sup> 있어 그의 출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일찍부터 글을 배울 수 있었고 좀 더 자라서는 經史와 百家書を 두루 구해 스스로 깨치고 익혔다고 한다. 이런 면모는 스스로를 타자로 규정하지 않고 사회적 신

5) 이상진, 柳下 洪世泰 研究, 성균관대(석사), 1984.

윤재민, 洪世泰의 文學思想, 한국문학사상사, 계명문화사, 1991.

안대회, 洪世泰論, 조선시대한시작가론, 이회, 1996.

이종태, 洪世泰 詩世界の 變貌와 그 意味, 복원한문학 9집, 1993.

채환중, 朝鮮後期 委巷文學과 士大夫, 한국문학논집 15집, 1994.

안영길, 朝鮮 委巷 文學論 연구, 양명학 10호, 한국양명학회, 2003.

이외에 홍세태가 저작한 傳 작품을 연구한 성과가 있다.

박희병, 17세기 동아시아의 戰亂과 민중의 삶,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

김용남, 柳下 洪世泰의 傳 연구, 개신어문연구 14집, 1997.

정병호, 洪世泰의 傳과 소설, 동방한문학 9집, 1993.

6) 洪世泰 私奴也 能文章 與農淵結交 (李東允, 樸素村話)

분적 주체로서의 상승 욕망을 보여준 것이다.

그가 1675(숙종1)년 23세의 나이에 譯科에 응시해 漢學官으로 선발된 것은 주체로서의 인식과 실천적인 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譯科 급제 이후로는 그의 주체적 실천과 도전이 사회에 용납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좌절을 겪고 절망을 느껴야했다. 譯官으로서의 실직이 주어졌더라면 여타 譯官들의 경우처럼 거의 공인된 역관무역을 통해 치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테지만 그에겐 쉽사리 譯官의 실직이 주어지지 않았다. 급제 후 23년이 지난 46세 때에 吏文學官에 보임되었으나 이 또한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때문에 평생토록 가난과 곤궁에 시달려야만 했다. 단지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아 30세 때에는 通信使 尹趾完의 製述官으로 일본을 다녀왔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製述官의 직임을 받았는데<sup>7)</sup> 홍세태는 자신의 주체성을 이런 점에서 찾고자 하였다.

홍세태는 사대부들과 똑 같은 여건에서 학문과 문학을 수련하지 못했지만 타고난 자질과 역량으로 그의 문학적 성취는 당대에 널리 인정을 받았다. 그가 私奴의 신분이었을 때도 당대의 권신 金錫胄와 東平君 李杭 등이 그의 문학적 재능을 아껴 贖錢을 내고 免賤시켜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sup>8)</sup> 사대부 문인들의 대표격인 金昌協, 金昌翁 등도 그의 文才를 높이 인정하며 서로 교유를 나누었다. 특히 시문학의 경우에 홍세태는 그의 작품적 수준으로 인해 스스로 강한 자부를 지녀 주체적 인식을 분명하게 가졌다.

무릇 사람은 천지의 中正함을 얻어 태어나니 그 情이 느끼어 말에 나타난 것이 시가 된 즉 貴賤이 없이 한 가지이다. 이런 까닭으로 詩經 삼백 편은 里巷의 가요에서 많이 나왔으나 孔子께서 그것을 취하셨다. 곧 兪置와 汝墳 등의 작품이 淸廟와 生民 등의 작품과 함께 風과 雅에 나란히 실려 있다. 그리 하여 처음부터 그 사람의 (신분에) 매이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聖人の 지극

7) 洪世泰는 30세 때의 일본통신사 제술관 이후 46세 때, 50세 때, 63세 때, 70세 때 각각 製述官의 직책을 받았다.

8) 世泰 李家奴也 …(中略)… 青城乃出銀百兩 東平君杭亦出百兩 贖之 杭亦愛其才也 (成大中, 醒言, 青城雜記)

히 공평한 마음이다.<sup>9)</sup>

홍세태는 『海東遺珠』를 찬집하고 그 서문에서 시에 관한 주체인식을 선명히 드러내었다. 『海東遺珠』의 서문을 쓴 시기가 1712(숙종38)년으로 그의 나이 60세 때인데 시문학에 대한 그의 평생 갈등과 욕망이 여기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표출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천지의 中正함을 받아 태어난다는 말에서부터 이미 사회적 신분을 부정했고, 나아가 사람의 정감을 언어로 형상화한 시라는 것은 더더욱 귀천의 구분이 없다고 강하게 선언하였다. 孔子가 詩經을 찬집하면서 사대부의 작품과 민간 가요적 성격의 작품을 한데 실어 놓은 것도 시문학에서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 지극히 공평한 처사였다고 주장한다. 孔子와 같은 성인께서도 시문학에 신분의 고하를 논하지 않았는데 홍세태 당세의 사람들이 인위적 신분에 따라 작품을 나누어 달리 평가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항변한 것이다. 조선중기 이후, 분화되어 오던 신분적 차별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표면화되고 점점 고착해 가고 있었기에 홍세태 스스로는 그러한 모순을 극복해 낼 수가 없었다. 여기에 인간 주체로서의 욕망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그의 인식이 『海東遺珠』 서문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대개 고관과 사대부들이 한 번 위에서 노래하니 草野의 미천한 선비들도 아래에서 고무되어 歌詩를 지어 스스로를 드러내었다. 비록 그 학문한 것이 넓지 못하고 자료를 취함이 멀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얻은 것이라 저절로 超絶해 맑고도 맑아 풍조가 唐詩에 가깝다. 저 경치를 묘사한 것이 淸圓한 것은 봄날의 새이며, 정을 펼쳐낸 것이 悲切한 것은 가을의 벌레인 듯하다. 오직 그들이 느껴서 드러낸 것이라 天機 중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 바 眞詩이다.<sup>10)</sup>

9) 夫人得天地之中以生 而其情之感 而發於言者爲詩 則無貴賤一也 是故三百篇 多出於里巷歌謠之作 而吾夫子取之 卽坳堂坳壤之什 與清廟生民之篇 並列之風雅 而初不係乎其人 則此乃聖人至公之心也 (<海東遺珠序>, 柳下集 권9, 文集叢刊 167-473).

10) 蓋自薦紳大夫 一倡(唱의 오기인 듯)于上 而草茅衣褐之士 鼓舞於下 作爲歌詩以自鳴 雖其爲學不博 取資不遠 而其所得於天者 故自超絶 瀏瀏乎風調近唐 若夫寫景之淸圓者 其春鳥乎 而抒情之悲切者 其秋虫乎 惟其所以爲感而鳴之者 無非天機中自然流出 則此所謂眞詩也 (<海東

홍세태는 고관 사대부의 문학과 초야 선비의 문학이 별도의 실체를 갖고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고관 사대부들이 性情을 시로 읊어내니 이에 고무된 초야의 선비들도 시를 지어 자신을 표현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야 선비들의 시문학이 고관 사대부들의 그것에 비해 학문의 정도와 자료의 취재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자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하였고, 이를 뛰어 넘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인식은 홍세태의 시대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문학에서 홍세태는 초야 선비들의 시작품이 하늘에서부터 얻은 정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이것이 바로 天機가 자연스레 흘러나온 眞詩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天機와 眞詩의 관념은 그가 스승으로 모신 金昌協의 논의에서 끌어왔으나 홍세태는 이를 위항인의 입장에서 별도의 시각으로 수용하였다. 그의 이 주장을 돌려 말하면 대개의 고관 사대부들의 시작품은 天機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는 참된 시가 아니라는 말이다. 사회적 신분의 차별과는 달리 시문학에서는 초야 선비들의 작품이 진정한 주체성을 가진다는 그야말로 타자의 주체화, 곧 주체의 역전을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홍세태의 이 주장은 위항인 그들만의 항변에 그치고 만다. 『海東遺珠』 자체도 사대부 문인인 金昌協의 권유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사대부 문인들은 그들의 현실적 지배질서 속에 위항인들을 포용해 두기 위해 시문학에 대한 위항인들의 주장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위항인들의 詩社 모임 등 문학활동을 음양으로 지원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이 홍세태 시대의 시문학을 둘러싼 天機와 眞詩의 주장과 주체인식의 실제 모습이었다. 사대부들은 위항인들을 타자의 선상에 두고 인식을 달리 하지 않았으며, 위항인들은 타자로서의 절실한 자각을 가지면서 주체로서의 욕망만을 분출해 냈을 뿐이었다.

홍세태는 그의 시문학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체적 인식을 갖고자 하였다. 이는 자신이 지닌 평생의 갈등이면서 한편으로는 강한 욕망이기도 했다.

遺珠序>, 柳下集 권9, 文集叢刊 167-473).

시는 하나의 작은 기예이다. 그러나 名利를 벗어나 마음에 매인 바가 없는 자가 아니면 잘 할 수 없다. 莊子가 嗜欲이 깊은 자는 그 天機가 얕다고 말한 바 있다. 옛날부터 살펴보면 시에 공교로운 선비가 山林과 草澤의 아래에서 많이 나왔고 富貴하고 勢利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잘하지는 못했다. 이로 보건대 시는 진실로 작다고만 할 수 없고 시로써 그 사람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sup>11)</sup>

시작품을 짓는 일은 작은 재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성물과 맺구를 맞추면서 다양한 시적 기교를 구사해 완성된 한 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대단치 않은 기예일 뿐일 수 있다. 이는 聖學에 침잠한 사대부들이 시문학에 대해 가지는 대체적 시각이었다. 홍세태도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가 사람이 지닌 中正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기교를 문제 삼아 작게만 여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진실로 감동 깊고 후세에 남길만한 시작품을 쓰려면 名利를 벗어나 마음에 매인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부귀와 권세를 가진 사대부 계층의 사람들은 嗜慾이 깊고 名리에 매여 있어 天機를 자연스레 드러내야 하는 시에 뛰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名리에 초탈한 초야의 선비들이 天機를 온전히 하여 더 훌륭한 시작품을 남길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 보였다. 홍세태의 이러한 인식은 위항인의 주체로서의 자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신분적 현실 속에서 언제나 주체에게서 소외된 타자일 수밖에 없지만 시문학에서는 위항인 스스로가 진정한 주체일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崔子の 곤궁함은 시가 공교롭기 때문이니 시는 할 것이 못 된다고 한다. 무릇 사람의 窮達은 命이 하늘에 있으니 어찌 시의 공교로움과 그렇지 못함에 매이겠는가. 보건대 지금 세상에 시를 짓지 않으면서도 곤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곤궁함이 같을 뿐이라면 차라리 시에 공교로운 것이 낫다. 저 살아서 수전노가 되었다가 죽어 시체가 식기도 전에 이름이 이

11) 詩者一小技也 然而非脫略名利 無所累於心者 不能也 蒙莊氏有言曰 嗜欲深者 其天機淺 歷觀自古以來 工詩之士 多出於山林草澤之下 而富貴勢利者 未必能焉 以此觀之 詩固不可小 而其人亦可以知矣 (<雪蕉詩集序>, 柳下集 권9, 文集叢刊 167-472).

미 사라지는 자들은 또한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sup>12)</sup>

이 기록은 홍세태 자신과 洛社에서 깊은 교유를 가졌던 崔承太의 시집에 부친 서문이다. 崔奇男의 아들인 崔承太는 北京을 다녀오기도 했고 京衙前의 직임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평생을 곤궁하게 살다 간 위향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는 洛社의 문인들 중에서도 수준 높은 경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다. 홍세태는 崔承太의 마음이 담박하여 세상의 榮辱에 전혀 매인 바가 없고 오직 시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작품이 매우 뛰어났다고 말했다.<sup>13)</sup> 세상사람들은 그의 시가 공교롭고 빼어났기 때문에 늘 곤궁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홍세태는 사람의 窮達은 天命일 뿐 시작품의 공교로움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하였다. 天命으로 곤궁하게 살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시에 서라도 뛰어나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었다. 홍세태는 崔承太의 시를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그대로 담아내었다. 자신의 평생 곤궁함도 오직 하늘에 매인 것일 뿐이라 이를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자신의 시문학은 누구나 높이 평가해 주고 이로써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야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 여긴 것이다.

홍세태는 자신의 평생 시문학을 스스로 정리해 문집의 편찬을 만들어 놓았다. 1724(경종4)년 72세 때 문집 편찬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주체적 삶의 성과인 시문 원고를 정리하였다. 그는 극도의 곤궁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문집의 간행을 위해 白銀을 70냥이나 베개 속에 감추어 두고 있었다고 한다. 시문으로나마 자신의 존재를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한 너무나 애절한 모습이 었다.

시라는 것은 性情에서 나와 聲音에 이르는 것이다. 읊어서 자연스럽게 神

12) 或者曰 詩能窮人 崔子之窮 以詩工耳 詩不可爲也 夫人之窮達 有命在天 豈係於詩之工不工耶 見今世之不爲詩而窮者何限 窮等耳 寧工於詩 彼生爲守錢虜 死尸未冷而名已滅者 亦何足道哉 (<雪蕉詩集序>, 柳下集 권9, 文集叢刊 167-472).

13) 蓋其心泊然 於世間事 無一掛意 而所嗜者詩耳 此其詩之所以工 (<雪蕉詩集序>, 柳下集 권9, 文集叢刊 167-472).

動과 天隨의 묘함이 있어야 이것이 지극하게 된다. 만약 奇巧에 힘써서 險澁한 말을 만들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공교롭다 한다면 시를 아는 자가 아니라 하겠다.<sup>14)</sup>

그가 편찬한 문집에 스스로 서문을 쓰면서 시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간명하게 요약해 두었다. 시의 본바탕은 인간의 性情이라 단언하였는데, 홍세태의 입장에서 이 말은 시가 사회적 귀천의 차별을 넘어선 차원의 것임을 응축한 것이었다. 읊어 보아 자연스런 ‘神動天隨’의 묘함이 있는 작품이 최고 수준의 것이라 말하였다. 작품이 지향해야 할 경지가 바로 ‘神動天隨之妙’이며, 이는 기교나 부리고 험잡한 語句나 만들어서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홍세태가 자신의 작품들이 神動과 天隨의 묘함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임을 밝힌 말이라 하겠다. 홍세태는 그의 주체성을 이런 높은 경지의 시문학에서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를 실제의 詩作에서 실천하였다. 이에 鄭來僑는 홍세태의 시가 神情이 이르는 곳에서는 妙悟가 스며들었고 境界를 그려낸 데에는 天機가 흘러나왔다고 극찬을 했다.<sup>15)</sup> 홍세태는 그의 시문학으로 당대 최고 문인의 한 사람으로 꼽혔으며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었던 것이다.

### 3. 주체욕망의 시문학

홍세태는 평생 저작한 시문을 문집으로 펴내기 위해 스스로 편찬을 정리하였다. 賦와 시, 문을 따로 묶고 그 각각을 저작시기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였다. 작가 자신이 직접 편찬한 것이라 작품의 저작시기가 거의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의 自敍에서는 시가 모두 1,627수라 했는데<sup>16)</sup> 후에 문집

14) 竊謂 詩者 出於性情 達乎聲音 諷之自然有神動天隨之妙者 斯爲至矣 若夫務奇巧 爲險澁語 以人所難解爲工 非知詩者也 (柳下集 自序).

15) 神情所到 潛透妙悟 其遇境摘藻 天機流出 (鄭來僑, 滄浪洪公墓誌銘).

16) 이종태는 柳下集 본집에 수록된 시가 모두 1,633수라 밝히고 있다. (洪世泰 시세계의 變貌와 그 意味, 복현한문학 9집, 1993)

간행 시 사위 趙昌會와 문인 金鼎禹 등이 補遺篇을 만들면서 585수를 추가해 놓았다. 실제 그가 저작한 시편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테지만 문집의 간행을 위해 어느 정도 스스로 취사선택한 결과라 여겨진다.

그의 시편에 나타난 대체적 경향은 唐風으로 평가되고 있다. 『柳下集』의 自敘에 金錫胄가 그의 시를 高適과 岑參에다 비유했음을 말하고 있는데,<sup>17)</sup> 이는 홍세태가 그러한 평가에 매우 흡족해 하였음을 알게 한다. 그의 제자인 鄭來僑도 홍세태의 시가 唐의 正宗 諸家들에 근접할 만하다고 기록해 두었다.<sup>18)</sup> 홍세태는 唐風을 자신의 시학으로 수용하고 이를 작품화한 것이었다. 이는 그가 시학의 正道, 곧 주체적 시학이 唐風이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세태는 詩稿의 수많은 작품에 일생동안 지냈던 주체로서의 욕망과 타자로서의 갈등을 표출해 놓았다. 그만큼 끊임없는 갈등과 번민으로 삶을 살았던 한 시인의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중 이른 시기의 작품에는 주체로서의 욕망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 비교적 자주 나타난다.

瓠生野田中	호박이 들 밭에서 자라더니만
瓠葉何離離	호박잎 어찌 저리 무성해졌나.
黃鵠厲羽翼	黃鵠이 날개를 떨치더니만
千里一高飛	천 리라 하늘 높이 날아오르네.
丈夫有遠志	丈夫에게 원대한 뜻이 있거니
小儒安可爲	小儒가 어찌 가히 해 볼 수 있나.
高步出閭闔	높은 걸음 궁문을 나서거니와
駕我四牡馳	四牡를 멍에 매어 내달린다네.
蘭皋騁脩軫	蘭皋에 큰 수레 몰아 달리면
天路遠如期	天路가 멀어도 기약하겠네.
舉足蹈瑤光	발 들어 瑤光을 디더 밟고는
左攀弱木枝	왼쪽으로 若木 가지 당겨 잡았네.

17) 息庵公見余少作 稱之曰高岑諸類 (柳下集 自敘).

18) 音調氣格 駸駸乎唐正宗諸家 (鄭來僑, 滄浪洪公墓誌銘).

義和勿遽迫 義和여 갑자기 다가오지 말고  
照我芙蓉衣<sup>19)</sup> 나의 고운 芙蓉衣를 비춰나 주소.

홍세태는 출신이 한미했지만 일찍부터 스스로 독서를 통해 發身할 꿈을 지녔었다. 특별히 별도의 스승을 모시지 않았으나 명민한 재능을 바탕으로 거의 홀로 학문을 익히고 깨우치다시피 했다. 애초에 주어진 신분적 한계 때문에 文科에의 응시는 접어버렸고, 대신 雜科를 준비해 23살의 젊은 나이로 譯科에 급제하였다. 譯官의 정원이 차 비록 바로 실직을 받지 못했지만, 譯科 급제는 그의 發身に 든든한 기반이 되리라 희망을 가졌다. 시일이 좀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실직을 제수해 자신의 역량을 펼쳐 보이고 사회적 주체로 편입되기를 기대했다. 실제 30세 때에는 譯官의 실직이 없었으나 그의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아 日本通信使의 製述官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위에 인용한 작품은 그의 나이 33세 때 지어진 것이다. 들에서 자라난 호박잎이 어느새 무성해졌음을 감탄하는 말로 詩想을 열었다. 이는 자신의 미천한 태생을 비유하면서 저 호박잎처럼 스스로도 앞으로는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뜻을 興의 수법으로 담아두었다. 다시 자신을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黃鵠에다 비유했다가 장부로서 원대한 뜻을 지니고 있음을 말했다. 큰 수레를 타고 하늘을 달려 햇살을 밟고서 若木 가지를 잡겠다고 해, 그야말로 엄청나게 원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그가 신분적 제약에 따른 사회적 장벽을 아직 절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뛰어난 역량을 믿어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 사회적 주체의 일원으로 우뚝 서기를 갈망한 모습이라 하겠다.

홍세태의 주체욕망과 그에 따른 심리적 갈등은 이후로도 계속된다.

내일은 서쪽으로 고향땅에 들어가는데  
歷聘하고 돌아오는 蘇秦과는 같지 않네.  
허리에는 비록 六國의 印 없긴 하지만  
詩卷 중에 오히려 온 江山을 얻었다네.

19) <遺興>, 柳下集 권1 (文集叢刊 167-316). '弱木'은 '若木'의 오키로 보인다.

西歸明日入鄉關 不似蘇秦歷聘還  
 腰下雖無六國印 卷中猶得一江山<sup>20)</sup>

이 작품은 그의 나이 36세 때 저작한 것이다. 『柳下集』에는 이 작품 앞에 <昭陽亭> <淸平寺> <豕國古墟> 등이 수록되어 있어, 이즈음에 그가 강원도 경내로 나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집을 나와 제법 오래 외지를 떠돌다가 내일은 고향으로 향하지만 자신은 戰國시대 蘇秦처럼 큰 업적을 이루어낸 것은 없었다. 蘇秦은 귀향할 때 六國의 宰相印을 차고 갔는데, 자신은 그보다 詩卷에 江山을 읊은 작품을 가득 채워 간다고 했다. 이룬 것 없는 자신의 귀향이 초라해 보이지만 詩卷을 채운 작품에 오히려 뿌듯해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흥세태는 자신의 주체욕망을 시작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 주체로서의 發身은 기약할 수 없었으나 이미 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터라 시문학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젊은 날에 지녔던 사회적 주체로서 發身の 꿈은 차츰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장벽으로 인해 아득히 멀어져만 갔다. 생활은 늘 곤궁했고 마흔이 넘어서는 두 아들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發身の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이제 겨우 몇尺의 어린 대나무  
 구름을 넘어설 뜻 이미 지녔네.  
 몸을 올려 변하여 용이 되고자  
 평지에 누운 것을 기꺼하지 않네.  
 嫩竹纔數尺 已含凌雲意  
 騰身欲化龍 不肯臥平地<sup>21)</sup>

어린 대나무를 소재로 읊은 이 작품은 45세 때에 지어진 것이다. 이미 중년을 넘어선 나이였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뜻을 펼칠 날이 올 것이라는

20) <西歸>, 柳下集 권1 (文集叢刊 167-324).

21) <嫩竹>, 柳下集 권3 (文集叢刊 167-344).

희망을 담고 있다. 아직 어린 대나무는 앞으로 얼마든지 높이 자랄 수 있다. 자신도 이 대나무처럼 높이 자라 올라 發身의 꿈을 이루게 될 터이니 낮고 곤궁하게 사는 것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내 보였다. 짧은 시편이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해 놓았다. 5언절구에서 허용되는 성률의 파격을 이용해<sup>22)</sup> 담담하지만 많은 자신의 意境을 충분히 표출하였다.

1698(숙종24)년 46세가 되어 드디어 그에게 吏文學官의 실직이 주어졌다. 그때 淸의 관리 博和諾이 中江監市로 義州에 왔다가 우리나라 시인의 작품을 보고 싶어 하자 右議政 崔錫鼎이 그를 추천했던 것이다. 시문학으로 사대부들 사이에도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까닭에 오래된 꿈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의 상을 당해 어렵게 부임한 실직에서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홍세태는 자신의 주체욕망을 시문학에서 이루어내고자 했다.

所住元山足	사는 곳이 원래가 산발치라서
經行一翠微	오고 감이 언제나 翠微속이네.
高秋草露重	높은 가을 풀 이슬은 무거운 듯해
空谷澗花稀	빈 골짜기 냇가 꽃은 드물어졌네.
獨鶴如人立	외로운 鶴 사람처럼 우뚝 서 있고
閑雲先客歸	閑雲이 客보다 먼저 돌아가네.
尋常樵牧事	尋常히 나무하고 소 치는 일이
出入各天機 <sup>23)</sup>	그 出入 각각이 天機일걸세.

홍세태는 쉽게 이해되는 시를 쓰려고 하였다. 『柳下集』 自敘에서 그가 말한 바처럼 험잡한 말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쓰는 시는 좋은 작품으로 여기지 않았다. 律詩의 頷聯과 頸聯에는 대개 典故 수사를 많이 쓰는 편인데, 홍세태는 律詩라 할지라도 냇구에 典故 수사를 매우 억제하였다.

22) 이 작품의 평측율은 '측측평측측 측평평평측 평평측측평 측측측평측'으로 起句, 承句, 結句에서 기본율을 벗어난 파격을 구사했다.

23) <晚眺>, 柳下集 권3 (文集叢刊 167-358).

위에 인용한 작품에서도 頷聯과 頸聯에 典故를 구사하지 않았다. 담박하면서 평이한 시편은 홍세대 시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8세 때 쓰여진 이 작품은 저물녘 자신의 거처에서 보이는 경물을 담박하게 그려낸 것이다. 일상의 나무하고 소 치는 일들이 그대로 자연스런 天機라는 말로 시를 마무리 하였다. 시작품은 天機를 담아내야 하는데 嗜慾없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 바로 天機의 한 표현일 것이란 생각이었다. 天機가 온전히 갖추어진 작품이 가장 훌륭한 작품이고, 이는 사대부들과는 달리 名利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신과 같은 위향인들이 이를 수 있는 것이란 논리를 갖추었다. 그의 문학적 주체욕망은 天機를 작품으로 발현하여 작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始輟咨花草	비로소 咨文의 草를 輟으니
身閑趣可知	한가로운 이 흥취를 알만 하다네.
烟生溪上屋	시냇가 집에서 연기 오르고
雀聚雨中枝	빗 속의 가지에 참새 모였네.
末路看棊累	末路에는 위태로움 보게 될게고
浮名覺黍炊	뜬 이름이 부질없음 깨달을 걸세.
隨緣有憂樂	인연 따라 憂樂이 있을 터이니
寫出卽眞詩 <sup>24)</sup>	그려내면 그게 바로 眞詩이라네.

49세 때 쓴 이 작품에서는 바로 眞詩를 운위하였다. 주어진 일을 마치고 한가로운 흥취를 느끼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냇가의 집과 내리는 빗속에 나무에 모여 앉은 참새를 보며 여유로움을 보였다. 인생이 마침내는 바둑돌을 쌓은 듯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부질없는 이름도 기장밥을 짓듯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라 했다. 삶의 근심과 즐거움도 주어진 연분을 따라 생겨나니 여기서 느끼는 정을 자연스레 그려내는 것이 바로 참된 시라 말하였다. 홍세대에게서의 眞詩는 일상의 정이 天機 중에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었다. 이런 작품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고 수준 높은 문학성을 이룬

24) <呈南隣>, 柳下集 권11 (文集叢刊 167-518).

것이라 여겼다. 자신의 작품은 이런 眞詩를 추구했기에 스스로 깊은 자부를 가졌고 당시 문단의 중심적 주체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실적 삶에 있어서는 철저히 타자였지만 시문학에서는 주체로서의 욕망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1710(숙종36)년 58세 때에 通禮院 引儀의 직책이 주어졌다. 의례를 진행할 때 笏記를 큰 소리로 불러주는 직책인데 대개 목청 좋은 아전들이 맡았다. 그의 곤궁함을 안타깝게 여긴 주변 인물들의 배려였지만, 이 또한 오래 하지 못하고 이내 파직 당하고 만다.

黃花는 解官이 늦었다고 나를 비웃어  
 술 익은 꽃 앞에서 한 잔을 들 만하네.  
 榮辱은 관계없는 내 몸 밖의 일이거니  
 귀신도 뱃속 詩는 빼앗기 어렵겠지.  
 黃花笑我解官遲      酒熟花前可一卮  
 榮辱不關身外事      鬼神難奪腹中詩<sup>25)</sup>

파직 후에 홍세태는 위의 작품을 쓰면서 스스로를 위안하였다. 가을의 黃菊을 바라보니 마치 자신의 파직을 늦었다고 비웃는 듯한데 그 앞에 앉아 한 잔의 술을 들었다. 가만 생각해 보니 평생토록 榮辱이란 자신과는 무관했는데, 다만 자신의 詩作 능력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 율었다. 그만큼 詩作에 대한 홍세태의 자부는 강한 것이었다. 자신을 진정한 주체로 자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문학이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시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보인 것은 주체욕망을 시문학으로 이뤄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라 하겠다.

#### 4. 타자갈등의 시문학

25) <罷官>, 柳下集 권5 (文集叢刊 167-388).

홍세태의 시문학에서 주로 표출된 것은 타자로서의 갈등이다. 眞詩로 문학에서의 주체욕망을 달성하고자 했으나 사대부 중심의 당시 문단에서 그는 여전히 타자일 뿐이었다. 사대부 문인들의 입장에서는 홍세태가 신분은 비록 미천하지만 시적 능력은 알아 줄 만하다는 정도였다. 그들은 위항인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려 하지 않았고, 위항인들 중에 재주가 뛰어난 자가 있어도 하찮은 말직이나 주어 거기에 만족하도록 하게 했다. 홍세태도 자신의 문학적 역량은 사대부 문인 그 누구에게도 못지 않을 정도였지만 언제나 그에 적합한 대우는 받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지닐 수밖에 없는 타자로서의 갈등이 그의 시문학의 주조를 이루었던 것이다.

내 평생 한스러운 바가 있으니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홀로 아는 것이다. 대개 그들은 뜻을 구함이 높지 못하고 재주를 씀이 넓지 못할 따름이다. 내가 태어나 다섯 살에 곧 책을 읽을 줄 알아 차츰 자라면서 다른 사람을 좇아 배웠으나 가까스로 몇 권에 그칠 뿐이었다. 經書들은 모두 스스로 취해 읽었는데 미묘한 말과 심오한 뜻을 마치 암암리에 마음에 이해되는 것이 있는 듯하였다. 만약 이를 미루어 넓혀가 六經의 근본을 탐구했다면 아마도 거의 얻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이 본래 가난하고 미천하여 衣食에 급급하여 큰 志業을 이룰 겨를이 없었다. 중년이 되어서는 고난과 곤궁에 동서로 돌아다녀 廢學을 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牢愁와 感憤과 鬱悒과 不平한 기운을 만나면 홀로 시에다 펼쳐내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칭찬을 해 문득 시인으로 지목되었다. 한 번 이 이름을 얻자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sup>26)</sup>

위에 인용한 글은 그가 70세 되던 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自警文>의 서두이다. 여기에 그의 타자로서의 삶과 시문학의 대략적 면모가 잘 요약되어 있다. 문장의 시작을 자신의 평생의 恨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26) 余平生有所恨 人所不知 而已獨知之者 蓋以其求志不高 用才不廣爾 余生五勢 卽知讀書 稍長 從人受學 僅數卷而已 至於經書 皆自取讀 而微辭奧旨 似若有暗解於心者 若推此以擴之 以求 乎六藝之本 則庶幾有所得者矣 而家素貧賤 急於衣食 未遑爲大志業 及其中歲 屯難阨窮 東西 怵迫 遂未免廢學 而遇有牢愁感憤鬱悒不平之氣 則獨於詩而發之 人之見者 皆謂之能 而輒以詩 人目之 一得此名 無以辭焉(<自警文>, 柳下集 권10, 文集叢刊 167-499).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말로 열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사회적 주체로서 發身의 꿈을 품었지만 사회적 장벽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 줄 수가 없었다. 간혹 그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나 자신을 높이 써 주지 않았던 것이다. 스스로 학문을 익히며 주체욕망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지만 가난과 곤궁함 때문에 먹고 살기에 바빠 큰 뜻을 추구해 볼 여유가 없었고, 더욱이 중년 이후에는 아예 廢學을 해야만 했다. 때문에 근심과 분함, 답답함과 불평한 마음 등이 늘 따랐고 이것을 담아낸 것이 자신의 시라 말했다. 곧 그의 시의 주된 정서는 바로 근심과 분함, 답답함과 불평한 마음이란 말이었다. 그와 깊은 교분을 나누었던 庾纘洪의 傳을 쓰면서 庾纘洪이 재주를 지니고서도 쓰이지 못해 늘 답답하고 불평한 마음으로 바둑과 술에 빠져 있어 世人들이 그를 미친 사람이라 했지만, 그야말로 참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당세에 제대로 쓰였다면 그 누구에도 못지 않았을 터인데, 평생 비천하게 살다 죽었으니 너무도 비통하다는 말을 했다.<sup>27)</sup> 이것은 庾纘洪을 슬퍼한 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한 것이었다. 그의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타자로서의 갈등으로 그의 시편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천하의 일들이 뜻 같지 않으니  
 세상에 그 누가 知音이런가.  
 뜬 구름과 流水는 아침저녁 다르지만  
 명월과 청풍은 古今으로 변함없네.  
 天下事不如意      世間誰是知音  
 浮雲流水朝暮      明月清風古今<sup>28)</sup>

6언으로 쓴 이 시편은 그의 나이 40세 때의 작품이다. 그의 문집에 6언으로 쓴 작품들이 제법 많이 수록되어 있다. 6언은 正格이 아니라 戲作의 성

27) 抱才藝 無所發施 其礪魄壹鬱不平之氣 一皆托於碁酒 坎軻落魄 以終其身 或者謂之妄人 然其才實奇 智慮明悟 卽用之當世 何遽不若人 而貧賤窮 竟不振以死 悲夫 (<庾述夫傳>, 柳下集 권9, 文集叢刊 167-483).

28) <放吟>, 柳下集 권2 (文集叢刊 167-331).

격을 떠는데 시인들은 종종 이런 형식을 통해 자신의 깊은 심회를 간명하게 담아내었다. 흥세대는 40세 전후에도 사회적 주체로서 發身할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의 상황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곤궁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미 詩로 이름이 나긴 했으나 진정 자신을 높이 이끌어 줄知音은 없었던 것이다. 세대는 뜬 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늘 변해가지만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은 언제나 변함없음을 읊으며 삶의 무상함을 나타내었다. 주체에 의해 타자로 규정된 삶이 주체로서의 욕망을 가질 때 필연적으로 깊은 갈등을 동반하게 된다. 주어진 여건에 승복하고 체념할 수 없기에 갈등의 진폭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荒荒霜下竹	어둑하게 서리 내린 대나무 숲에
歲暮練實稀	歲暮라 대 열매도 드물어졌네.
上有孤鳳雛	그 위에 외로운 어린 봉황새
文章被其衣	곱고 고운 문채로 옷을 입었네.
如何步塵區	어찌하다 티끌 세상 밟게 되어서
謂言君德輝	너의 덕을 빛난다 말하게 하나.
北風吹羽翼	북풍이 날개에 불어 닥치자
啾啾忍朝饑	울면서 배고픔을 참고 견디네.
鴟鵂得腐鼠	솔개가 썩은 쥐를 얻어 가지고
仰視嚇且譏	올려보며 으르고 놀려댄다네.
食少心則潔	적게 먹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食多身則肥	많이 먹으면 몸만 살이 찐다네.
秉志既不同	가진 뜻이 이미 서로 같지 않거니
知命復何希	命을 아니 다시금 무얼 바라리.
去矣天路永	가거라, 멀고 먼 하늘의 길로
千仞起高飛 <sup>29)</sup>	천 길로 일어나 높이 날아라.

이 작품은 <詠貧士>라 제목을 한 5언의 고시다. 일찍이 陶淵明이 같은

29) <詠貧士>, 柳下集 권3 (文集叢刊 167-348).

제목으로 7수의 연작시를 쓴 적이 있는데 홍세태는 그 題名을 빌려 자신의 심회를 표출해 냈다. 陶淵明은 역량 따라 분수를 지킨 선비는 늘 춥고 굶주렸다 하고 知ஶ이 없으니 슬퍼해도 소용없다 말하며<sup>30)</sup> 安分自足的 체념을 시에 담았다. 홍세태는 이 작품에서 자신을 외롭고 어린 봉황새로 비유를 했다. 재능과 덕이 뛰어나건만 겨울의 찬바람이 불어 닥치자 배고픔을 참고 견딘다 하였다. 이런 봉황의 모습은 그대로 홍세태 자신의 것이었다. 봉황이란 비유 자체가 사회적 신분적 질곡을 뛰어넘는 시인의 주체인식이었다. 술개가 썩은 쥐를 잡고서 행여 그것을 빼앗길까봐 봉황을 올려다보며 올리 대고 있는 것은 莊子가 썩은 권력에 대한 비유로 쓴 적이 있는데,<sup>31)</sup> 홍세태는 이를 끌어와 物慾을 지니지 않은 고결한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 시편에서 그는 봉황에게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가라고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주체성취의 갈망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타자로서의 갈등은 가난과 곤궁함으로 더욱 깊어졌고, 이를 극복해 내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작품화한 것이다.

이 작품을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홍세태는 吏文學官으로 다시 承文院 製述官이 되었다. 이 과정에 임금께서 자신의 詩名을 들은 적이 있다 하고 곧 직임을 내린 것에 매우 감격해 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재능이 부족해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주체로서 편입 가능성에 기쁨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어렵게 받은 직책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만 두게 되자 그의 갈등과 절망은 한층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집안이 가난하여 제삿날 여력이 없어  
은비녀 아낌없이 남에게 팔아 버렸네.  
나 스스로 그대의 효성에 감동은 하나  
이 생애 丈夫로 태어난 몸 헛된 것이네.  
祭先無力奈家貧      不惜銀尖賣與人

30) 量力守故轍 豈不寒與饑 知音苟不存 已矣何所悲 (<詠貧士>, 陶淵明集 권4)

31) 鵲鷓發於南海 而飛於北海 非梧桐不止 非練實不食 非醴泉不飲 於是鷓得腐鼠 鵲鷓過之 仰而視之曰嚇 (莊子, 秋水)

我自感君誠孝意 此生虛作丈夫身<sup>32)</sup>

49세 때 지어진 이 작품은 당시 흥세대의 빈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삿날을 맞았는데 祭需를 마련할 돈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아내가 꼬고 있던 은비녀를 팔아와 가까스로 제사를 치를 수가 있었다. 아내가 보여준 효심에 뜨거운 감동을 느꼈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니 丈夫된 몸으로 인생을 헛되이 살았음을 절감하였다. 鄭來僑가 쓴 그의 墓誌銘에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늘 굶주렸으나 그는 이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했다.<sup>33)</sup> 언제나 궁핍했지만 가사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 忌日을 맞아 아내가 보인 헌신적 효성에 감동하면서 새삼 철저히 소외된 타자의 모습을 느껴야 했다. 丈夫로서 원대한 뜻을 가져 능력을 펼치며 안온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어느새 나이는 중년을 넘겼고 그 동안의 삶이 너무나 허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빈곤함은 쉽게 해소되지 못했다. 교유를 가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1705(숙종31)년 53세 때에 黃海道 襄津郡의 屯田長 일을 맡아 보게 되었다. 문필의 재능이 당대 최고 수준이었으나 그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와는 전혀 별개의 말직이었다. 屯田은 군졸과 평민, 관노 등을 부려 척박한 땅을 개간해 만든 전답으로, 여기의 수확을 거두어 관아경비나 군량미에 보충을 하게 했다. 사대부 계층이 아닌 중인 이하 신분의 사람들이 맡아 보던 일이었다. 흥세대로서는 그나마 이 일이라도 해야 어느 정도 빈곤함을 메울 수 있는 형편이었다.

田家有老牝	시골집에 늙어진 암말 있는데
生得天馬駒	나면서 天馬의 자질 가졌지.
龍鬣五花文	용 갈기에 五花의 화려한 무늬
神骨世所無	그 神骨은 세상에 볼 수 없었네.
里閭不見異	마을에선 다름을 보지 못하고

32) <先忌日 家貧無以供祭需 室人拔頭上銀尖子鬻之 感而有作>, 柳下集 권3 (文集叢刊 167-359)

33) 環堵蕭然 妻子阻飢 而不以爲心 (鄭來僑, 滄浪洪公墓誌銘).

爭借駕柴車    다뤄 빌려 장작 수레 끌게 하였네.  
 垂耳逐羊牛    귀 내리고 양과 소를 쫓아다니다  
 終日數里餘    종일토록 달려도 몇 리 남짓해.  
 長安有大道    長安에 큰 길이 있긴 하지만  
 此馬終村墟<sup>34)</sup>    이 말은 촌구석에서 생을 마치네.

이 작품은 屯田長으로 襄津에 머물던 시기에 지은 것이다. 위항인들이 자신을 천리마에 비유해 작품을 쓴 예가 많은데, 이것도 홍세태가 자신을 쓰이지 못한 천리마에 비겨 신세를 한탄한 작품이다. 화려한 무늬와 빼어난 골격을 가진 천리마이건만, 아무도 그 자질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장작 수레나 끌면서 생을 마친다고 읊었다. 시골 벽지에서 屯田이나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서글픈 신세를 이 한 편에다 여실히 표현해 냈다. 끝내 극복될 수 없는 타자로서의 갈등을 선명히 나타낸 작품이었다.

홍세태는 屯田長의 일을 한 후 만년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관직을 받게 된다. 58세 때는 通禮院 引儀, 61세 때는 西部主簿兼纂修郎, 62세 때는 松羅道 察訪, 64세 때는 義盈庫 主簿, 67세 때는 蔚山 監牧官 등의 직책을 받았는데 대개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일찍 罷官되었다. 그가 받은 직위는 거의 중6품직으로 자신의 현실적 신분이나 처지로 보아서는 미관말직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직책이 모두 文翰과는 거리가 멀었고 사대부 문인들이 차지하는 淸要職과는 전혀 별개의 잡직이었기에 그는 만족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직책을 받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로 파직되어 물러나야 했으니 타자로서의 갈등은 시일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었다.

客이여 客이여 그대 字는 道長이라  
 스스로 이르길 평생토록 강개한 뜻 지녔다네.  
 독서가 만 권이나 어디에 쓸모 있나  
 늙어 가매 웅장한 뜻 풀 더미에 떨어졌네.

34) <雜興>, 柳下集 권4 (文集叢刊 167-372).

그 누가 천리마를 소금 수레 끌게 했나  
 太行山도 높아서 올라갈 수 없다네.  
 오후라 첫 째 노래여, 노래 부르려 하니  
 뜬 구름에 밝은 해가 홀연히 어둡해지네.  
 有客有客字道長 自謂平生志慨慷  
 讀書萬卷何所用 遲暮雄圖落草莽  
 誰教騏驎伏鹽車 太行山高不可上  
 嗚呼一歌兮歌欲發 白日浮雲忽陰結<sup>35)</sup>

이 작품은 蔚山 監木官으로 부임해 있으면서 비교적 좀 여유로운 시기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지은 7편의 연작 古詩 중 한 수이다. 그가 만권이나 독서를 했어도 아무짝에도 쓰이지 못하고, 젊은 날 품었던 큰 포부가 이렇게 늙어서는 풀숲 더미에 묻혀버렸다고 했다. 자신은 분명 천리마의 능력을 지녔건만 소금 수레나 끄는 처지여서 평생토록 비탄과 회한 속에 살아야 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때의 나이가 67세였으나 이미 실패한 사회적·문학적 주체로서 자기확립의 욕망을 내던지지 못하고 끝없는 스스로의 회한을 시편에다 담아낸 것이었다.

외로운 밤 등불 앞에 걸린 칼 있어  
 만져 보며 한 곡의 노래 부르네.  
 절세의 보배인 줄 누가 알겠나  
 천하에 일찍이 많지 않은데.  
 獨夜燈前劍 摩挲一放歌  
 誰知絕世寶 天下不會多<sup>36)</sup>

위항의 시인들이 자신의 역량과 처지를 보검에다 비유해 작품을 쓴 예가 드물지 않다. 흥세태도 보검을 소재로 작품을 쓰면서 자신의 신세에 대한

35) <鹽谷七歌>, 柳下集 권13 (文集叢刊 167-539).

36) <寒夜無眠 孤燈耿耿 見壁上掛劍 取視之 感歎爲詩>, 柳下集 권7 (文集叢刊 167-442).

강개한 심회를 드러내었다. 이보다 앞서 64세 때에는 <古劍篇>이란 제목으로 장편의 古詩를 써 비분강개한 정회를 마구 쏟아내기도 했다. 위의 시는 69세 때 한 겨울 추운 날 밤에 잠을 들지 못하고 벽에 걸린 칼을 보고는 다시금 회한이 북받쳐 읊어낸 작품이다. 등불 앞에 홀로 앉아 칼을 어루만지며 세상에 흔치 않은 절세의 보배인 줄 누가 알아주겠나 하면서 개탄하고 있다. 보기 드문 절세의 보검이건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음을 슬퍼하고 있다. 짧은 5절을 이용했는데 轉句에 축성의 下三連을 써 기본율을 벗어나 拗를 듬으로써 그것이 절세의 보배임을 힘주어 강조했다. 이처럼 타자로서의 갈등은 그가 추구한 주체욕망의 이면으로 그의 평생 시문학 전체의 한 축이 되었던 것이다.

## 5. 結言

주체는 타자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주체의 확인은 타자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주체와 타자의 개념과 범주는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용어들이다. 주체는 언제나 주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타자 또한 언제나 타자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른바 주체의 타자화와 타자의 주체화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 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개연성이 항상 열려 있는 상황이다. 문학작품을 남긴 작가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주체이면서 타자성을 동시에 지니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대적, 사회적, 문학적 해석의 시각에 따라 한 작가의 복합적 성격은 새롭게 조명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홍세태는 자신의 시대에 사대부 문인의 시각에서 사회적으로 철저한 타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평민과 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雜科로 진출한 士의 일원이었고 6품이나 되는 관직을 지냈으며 시로 명성을 얻은 또 다른 사회적 주체였던 것이다. 그는 시문학으로 사대부 문인과 동등한 주체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문학사에서 볼 때 그는 당대 최고 수준의 시인이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당시 문단의 실질적 주체로 규정해도 좋을 정도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대에 그만큼 뛰어난 문학적 역량을 가

지고서도 주체로서의 욕망을 성취할 수 없었고 끊임없는 타자로서의 갈등 속에 삶을 마쳐야 했다. 이런 점도 홍세태란 한 문인이 지녔던 주체와 타자의 복합성의 한 측면이다.

문학을 주체와 타자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분명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체와 타자의 구분은 근본적으로 인식의 권력에 기반하고 있어 인식의 관점에 따라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런 재해석의 작업은 문학사의 전반적 해체와 재검토의 상황까지 연결될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심도 있는 연구 작업이 요청된다. 향후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 따른 연구 업적들이 다양해지면 문학 연구의 깊이가 한층 심화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洪世泰, 柳下集, 韓國文集叢刊 167.
- 강명관, 조선후기 여향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 강영안, 주체는 죽었는가, 문예출판사, 1996.
- 김용남, 柳下 洪世泰의 傳 연구, 개신어문연구 14집, 1997.
- 박희병, 17세기 동아시아의 戰亂과 민중의 삶,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
- 윤효녕 외, 주체개념의 비판, 서울대출판부, 1999.
- 안대회, 洪世泰論, 조선시대한시작가론, 이회, 1996.
- 안영길, 朝鮮 委巷 文學論 연구, 양명학 10호, 한국양명학회, 2003.
- 윤재민, 洪世泰의 文學思想, 한국문학사상사, 계명문화사, 1991.
- 이상진, 柳下 洪世泰 研究, 성균관대(석사), 1984.
- 이종태, 洪世泰 詩세계의 變貌와 그 意味, 복현한문학 9집, 1993.
- 정병호, 洪世泰의 傳과 소설, 동방한문학 9집, 1993.
- 채환중, 朝鮮後期 委巷文學과 士大夫, 한국문학논집 15집, 1994.

Desire as "the subject" and Conflict as "the others" of Hong se-tae's  
poems

Park, Soo-cheon

Hong se-tae was one of famous poets in the middle class during the latter Chosun dynasty. He wanted to have the thought as one of "the subject" on the literary society. That was his strong desire and also deep conflict during his all the life.

He insisted to have clean mind without vulgarly fame in order to write excellent works which made deep impression. And he showed his opinion that the poets of the middle class could make the better poems. It was an extinct consciousness as one of the subject on the literary society.

Hong se-tae wanted to write the "true poem". It was the poem that had natural expression of usual emotion. His works were the "true poem", so he had deep pride as oneself. Also he thought that he must be one of the central subject on the literary society at that time. He was completely one of "the others" on the actual life, but he had strong desire to be as one of "the subject".

Hong se-tae expressed mainly the conflict as "the others" on his poems. He wanted to accomplish the desire as "the subject" with the "true poem", but he was one of "the others" as ever. Because of that, the main thought of his poems was the conflict as "the others".

Key words : the subject, the others, desire, conflict, middle class